

#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와 아동의 도덕성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Cheating Behavior in Children and Their Self-Reported Morality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육학부  
조교수 허 정 경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한 국 선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Digit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ung Kyoung, Huh*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Full-Time Professor : Kuk Sun, Ha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cheating behaviors and their self-reported orality. For this study, 883 children were selected from 7 elementary schools and from 7 middle schools in Seoul, Korea. The participating students included 4th, 6th and 8th graders. The research was performed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questionnaires designed to measure the students' cheating behaviors and moral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hildren cheated on occasion. More cheating occurred during homework than while taking an examination. During an examination, there was more lone cheating than students helping other students to cheat. With regard to homework cheating, helping others to cheat was higher than students doing their own cheating. Cheating behavior increased in higher grad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enders. 2. In relation to children's morality, distinctions between 6th graders, 8th graders and 4th graders were different demonstrated. 3. In relation to cheating behavior and morality (4 factors), while PHIL (interests to others) factor decreased cheating behavior, EMP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feeling) factor increased cheating behavior.

**주제어(Key Words)** : 아동의 학업부정행위 (children's cheating behaviors), 도덕성 (morality), 시험 (examination), 과제물 (homework)

## I. 서론

학업 부정행위에 대해 Bushway와 Nash(1977)는 시험 볼 때 노트를 몰래 베끼기, 다른 친구의 답안지 베끼기, 표절(plagiarizing)과 대작(ghostwriting)하기 그리고 다른 친구의 과제물 베끼기라고 했다. 그리고 Singhal과 Johnson(1983)은 학업 부정행위를 '부당하게 정보를 주거나, 얻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교사가 학생의 지식이나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논문, 시험, 과제물을 학생이 부당하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Kibler, Nuss, Paterson과 Pavela(1988)는 학업 부정행위는 표절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학업활동을 하는 데 부당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Franklyn-Stokes와 Newstead(1995)는 학업 부정행위 방법은 시험과 과제물을 베끼기, 쪽지 이용, 대리시험, 참고문헌 날조하기, 데이터 변경하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로, 한준상(1995)은 학업부정행위를 '비밀쪽지 이용하기'와 '친구 것 보기'라 하였고, 우남희와 한국선(2005) 그리고 정철(1996)연구에서의 초·중등학생의 학업부정행위의 형태는 시험 볼 때 '친구에게 알려주기'와 '쪽지 이용하기' 그리고 '친구 것 보기'이었다.

이처럼, 학업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유사한 용어로는 학생 부정행위(student cheating), 부정직성 행동(dishonesty behavior), 학업 비행(academic misconduct), 표절(plagiarism), 사기(cozenage), 기만(fraudulence), 범죄행위(crime behavio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부정행위를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부정행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업부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정행위자들의 성격특성들과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인들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Bushway & Nash, 1977; Kibler, 1993). 즉, '심리적 요인'인 아동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높은 동기 수준이나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 등 내적 요소인과 '상황적 요인'인 게으름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모의 압력, 많은 가외활동(加外活動) 등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격특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업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능이나 학업성취(Antion & Michael, 1983; Bunn, Caudill, & Gropper, 1992), 성별(송현지, 1994; 오영희, 1999; Schab, 1991), 정서나 행동특성(송현지, 1994; White, Zielonka, & Gaier, 1967)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능이나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긴장이나 불안이 높고 반사회성이 높을수록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도덕성 측면에서 윤리의식이 낮고 자제력이 약한 학생, 자신을 합리화 또는 중립화하면서 외적 귀인을 잘하는 학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많이 한다(Anderman, 1998)고 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윤리 도덕 교육에서 정직성을 가르치지만 정작, 학생들의 부정행위는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그 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Gomez(2001)의 말대로 아동들은 처음에 부정행위를 한 후 나쁘다고 생각하나, 계속 습관화되면 더 하게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의 도덕성 문제는 그저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 교육에만 맡겨두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 본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소중한 도덕적 가치를 배우고 있는지, 초등학교에서부터 규범화되기 시작되는 도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들의 폭력, 본드 흡입, 약물남용, 따돌림 등 반사회적 행동들은 문제시되고 있으나 학업부정행위의 습관화된 반사회적 행동들은 대체로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도덕성의 덕목중의 하나인 정직성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아동기의 학업부정행위는 장래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부적절한 사회생활을 이끌게 될 것이다. 즉 학업부정행위를 했던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Gehring, Nuss, & Pavela, 1986). 학업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발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Kibler, 1993a, 1993b). 그러나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학업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도덕성이 학업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들어 기존의 Kohlberg 중심의 도덕성 이론을 반박하는 연구들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도덕성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도덕성의 평가는 행위의 동기와 실제행동, 갈등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실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eters, 1971). 도덕성을 측정·평가하려면 도덕적 판단·심정 등 주로 도덕적 의식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동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으로 고려하여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아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한 개인의 총체적인 능력으로서의 도덕적 지식이나 기능의 활용능력,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 등을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Wilson의 도덕성 이론은 지금까지 알려진 도덕성 진단검사 도구인 Kohlberg가 개발한 도덕 판단 면담법, Porter & Tayler가 개발한 OISE(The Ontario Institute for the Studies in Education)검사 및 Rest가 개발한 DIT(The Defining Issues Test)등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기존의 도덕적 판단만을 중시하는 측정도구들에서 아동들의 도덕성을 종합적인 발달 측면에서 측정하는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Wilson의 도덕성 이론을 평가도구로 하여 개인의 知·情·意·行을 포괄한 도덕적인 모든 측면을 학업부정행위와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학업부정행위는 주로 대학생에게서 이루어져 시험과 논문에 관한 부정행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부정행위를 시험과 과제로 구분하여 상세히 알아보려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초·중등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신연희, 2003; 오영희, 1999), 특정 학년의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성차와 학년간의 비교 등(김상윤, 1989; 정철, 1996; 한준상, 1995)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와 도덕성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별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가 아동의 도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의 학업부정행위는 어떠한가? 그리고 아동의 학년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아동의 도덕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아동의 학년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와 도덕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아동의 도덕성이 시험 부정행위와 과제물 부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7개권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초등학교 7개교에서 각 4반과 중학교 7개교에서 각 2반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7개 교육청(북부, 성동, 성북, 강동, 강남, 강서, 중부)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두 곳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하여 학업 부정행위와 도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질

문지 1200부를 배부하고 바로 수거 후, 응답이 누락된 31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266명, 6학년 290명, 중학교 2학년 327명, 총 883명을 연구대상(남자가 48.7%, 여자가 51.3%)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 2. 연구도구

#### 1) 아동의 학업 부정행위 측정 도구

아동의 학업부정행위 측정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ranklyn-Stokes와 Newstead(1995)의 학업 부정행위 목록(A set of cheating behaviors)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cLaughlin과 Ross(1989)의 학업 부정행위 항목(Survey Responses by Students and Faculty-Administrators)을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우남희와 한국선(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업 부정행위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험과 과제물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시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하기 10문항과 부정행위 돕기의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과제물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하기 3문항과 부정행위 돕기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하지 않는다 0점, 가끔한다 1점, 자주한다 2점, 항상한다 3점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학업부정행위 총 20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학업부정행위 전체 문항이  $\alpha = .92(n = 883)$ 이고 시험은  $\alpha = .94$ , 과제물은  $\alpha = .71$ 이다.

<표 1> 아동의 학업부정행위 측정도구의 구성내용

구분	영역	문항 내용	문항번호
시험	부정행위 하기	남의 것 보고 쓰기 신호로 답 받기 답안지 받기	1~10
		남의 것 보고 쓰기 답 알려달라고 하기 선물을 주고 답 받기 쪽지 보기 공책이나 책보기 책상, 벽 등에 써놓기	
과제물	부정행위 돕기	답안지 보여주기 신호로 답 알려주기 답안지 주기 선물 받고 답주기	11~14
		부정행위 하기	베끼기 친구숙제를 내 이름으로 내기 친구가 대신 해주기
과제물	부정행위 돕기	베끼도록 해주기 숙제 빌려 주기 대신 해주기	17~19

#### 2) 아동의 도덕성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Wilson(1973)이 개발한 도덕성의 측정도구

〈표 2〉 아동의 도덕성 평가 도구의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제1범주 (정서감정적 요인)	사람의 개념을 알기(PHIL-HC) 사람의 개념을 도덕원리로 주장하기(PHIL-CC) 사람의 개념을 사람 지향적 차원에서 도덕원리로 지지하는 정서감정을 가지기(PHIL-RSF-PO) 사람의 개념을 의무 지향적 차원에서 도덕원리로 지지하는 정서감정을 가지기(PHIL-RSF-DO)	1~12	12
제2범주 (동기적 요인)	정서의 개념을 알기(EMP-HC) 나의 정서감정을 인지하기(EMP-1) 다른 사람의 정서감정을 인지하기(EMP-2)	13~23	11
제3범주 (인지적 요인)	엄연한 사실에 관해 알기(GIG-1-KF) 엄연한 사실의 정보원천에 관해 알기(GIG-1-KS) 언어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2-VC) 비언어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2-NVC)	24~43	20
제4범주 (행동적 요인)	도덕적 문제인가를 타당하게 인식하기(KRAT-1-RA) 도덕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사고하기(KRAT-1-TT) 도덕적 문제를 정당하게 결정하기(KRAT-1-OPU) 도덕적 문제를 판단(결정)대로 행동하기(KRAT-2)	44~55	12

를 기초로 만든 남궁달화(2005)의 도덕성 설문지 사용하였다. 월슨의 도덕성 측정 도구의 구성영역은 PHIL(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EMP(정서, 감정의 이해), GIG(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기술), KRAT(도덕적 사태의 인식, 도덕적 사고 및 결정과 행동)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구성요소는 16요소이다. 그러나 남궁달화(2005)는 구성요소 16개 중 2범주(EMP)의 무의식(EMP-1,2-Ucs)을 제외한 15요소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는 무의식 세계에서 작용하는 사람들의 정서감정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표 2〉는 아동의 도덕성 측정 도구 구성으로, 정서감정적 요인 12개 문항, 동기적 요인 11개 문항, 인지적 요인 20개 문항과 행동적 요인 12개 문항인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 $n = 475$ )이다.

남궁달화(2005)가 개발한 도덕성 진단 검사의 채점은 정서감정적요인과 동기적요인, 행동적 요인에서 각 문항마다 2점씩, 인지적 요인은 각 문항마다 1점씩이다. 그러므로 각 범주의 만점은 제1범주 24점(12×2), 제2범주 22점(11×2), 제3범주 20점(20×1), 제4범주 24점(12×2)이다. 또한 이들 55개 문항 전체 점수의 합은 90점이다. ‘도덕성 진단 검사’의 전체 점수는 원 점수 90점에 기본으로 10점을 더하여(도덕성검사를 개발한 남궁달화에 의하면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화 하였을 때 쉽게 대상자의 도덕성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도덕성 함양 여부를 완전하게는 측정해 낼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검사가 측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도덕성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채점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 점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각 문항은 3가지 선택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답안지에 각 문

항의 답지 ‘가, 나, 다’ 중 맞다고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중 정답에만 점수를 부여하여 맞은 것에만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각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표준점수(z점수)로 전환하였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13명의 전문가인 초등학교 6명과 중등학교 7명에게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거친 뒤, 1주일간 강서구와 은평구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51명과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의 219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난이도와 적절성 및 시간 소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중학교 3학년은 설문지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연령별 간격에 적절성을 2년씩 차이를 두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설문지의 문항 내용을 쉽게 알도록 수정하고, 설문지 작성할 때의 시간 배정을 보완하였다. 이에, 초등학교는 설문지를 2회(도덕성 검사지와 학업부정행위 및 일반 검사지)에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총 소요된 시간은 90분이었고, 중학생 설문지는 1회로 45~60분이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기간은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응답율을 확보하고자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적절히 시간 배정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4학년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성 설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에 한하여 담임교사가 설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였다.

〈표 3〉 학년에 따른 시험과 과제를 부정행위 점수 차이

M(SD)

		초등4 (N = 266)	초등6 (N = 290)	중등2 (N = 327)	Total (N = 883)	F	Duncan
시험	부정행위 하기	1.19(.41)	1.25(.40)	1.37(.46)	1.27(.43)	13.163***	a < c, b < c
	부정행위 돕기	1.17(.47)	1.19(.43)	1.33(.54)	1.24(.49)	9.678***	a < c, b < c
	계	1.17(.43)	1.22(.40)	1.35(.48)	1.26(.45)	11.967***	a < c, b < c
과 제	부정행위 하기	1.42(.31)	1.51(.39)	1.63(.42)	1.45(.43)	126.990***	a < b < c
	부정행위 돕기	1.31(.49)	1.74(.53)	1.82(.50)	1.64(.55)	84.660***	a < b, a < c
	계	1.23(.36)	1.63(.39)	1.72(.39)	1.54(.44)	135.285***	a < b < c
전체		1.20(.36)	1.43(.35)	1.54(.37)	1.56(.39)	63.552***	a < b < c

\*\*\* $p < .001$  (a = 4학년, b = 6학년, c = 중2학년)

#### 4. 자료분석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각 측정도구들의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척도, 도덕성 평가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으로 신뢰도계수와 내적 일치도 검사를 하였다.

둘째,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학년별, 성별 차이는 F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고, 아동의 도덕성 검사는 답안지를 채점한 뒤, 원점수를 표준점수(z점수)화 하였다.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학년별,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와 도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SD = .36), 6학년(M = 1.42, SD = .35), 중2학년(M = 1.54, SD = .37)으로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 ( $F = 63.552, p < .001$ )를 보이고 있었다. 시험 부정행위에 있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며( $F = 11.967, p < .001$ ), 부정행위 하기( $F = 13.163, p < .001$ )와 부정행위 돕기( $F = 9.678, p < .001$ )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제물 부정행위 역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F = 135.285, p < .001$ ), 부정행위 하기( $F = 126.990, p < .001$ ), 부정행위 돕기( $F = 84.660, p < .001$ )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성에 따른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는 전체적으로 남자(M = 1.40, SD = .39)가 여자(M = 1.39, SD = .38)보다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아동의 성에 따른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 차이

M(SD)

		남자 (N = 430)	여자 (N = 453)	t
시험	부정행위 하기	1.28(.44)	1.27(.43)	.397
	부정행위 돕기	1.24(.49)	1.22(.49)	.496
	계	1.26(.45)	1.25(.44)	.464
과 제 물	부정행위 하기	1.47(.45)	1.42(.40)	1.753
	부정행위 돕기	1.62(.54)	1.66(.56)	-1.033
	계	1.55(.44)	1.54(.43)	.207
전체		1.40(.39)	1.39(.38)	.384

### Ⅲ. 연구결과

#### 1. 아동의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 평균이 1.26점, 과제를 평균이 1.54점으로 시험이나 과제물에서 부정행위가 평균적으로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험(M = 1.26, SD = .45)보다는 과제물(M = 1.54, SD = .44)에서 부정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t = -20.210, p < .001$ ).

시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하기(M = 1.27, SD = .43)가 부정행위 돕기(M = 1.24, SD = .49)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과제물 부정행위에서는 반대로 부정행위 돕기(M = 1.64, SD = .55)가 부정행위 하기(M = 1.45, SD = .43)보다 더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 1) 아동의 학년에 따른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

아동의 학년에 따라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부정행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3〉에 의하면 4학년(M = 1.20,

#### 2. 아동의 도덕성

아동의 도덕성에 대한 점수는 4요인의 문항수와 배점이 각각 다르므로 각 요인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Z점수화 하였다. 아동의 도덕성에 대한 점수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표 5〉 아동의 도덕성 요인에 대한 점수 분석 결과

도덕성 요인	원 점수				z 점수			
	M	SD	최소값	최대값	M	SD	최소값	최대값
정서감정적	12.80	3.85	2.00	24.00	-.0007	.9999	-2.81	2.91
동기적	11.99	4.60	2.00	22.00	-.0025	1.0000	-2.17	2.17
인지적	13.44	3.13	2.00	20.00	-.0009	.9992	-3.65	2.10
행동적	13.93	5.37	2.00	24.00	-.0139	.9999	-2.23	1.86
전체	62.12	11.47	27	90.00	-.0180	2.6999	-8.65	7.16

〈표 6〉 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성 차이

요인	M(SD)					
	초등4 (N = 266)	초등6 (N = 290)	중등2 (N = 327)	Total (N = 883)	F	Duncan
정서감정적	.16(.94)	-.15(1.00)	.00(.17)	-.00(.99)	6.832**	a > b
동기적	-.36(.87)	.06(.95)	.23(1.06)	-.00(1.00)	28.037***	a < b, a < c
인지적	-.06(.88)	.24(.97)	-.05(1.07)	-.01(.99)	13.683***	a < b, b > c
행동적	-.23(.88)	.22(.97)	-.05(1.07)	-.01(.99)	15.096***	a < b, b > c
전체	-.50(2.25)	.37(2.57)	.02(3.07)	-.02(2.70)	9.860***	a < b, a < c

\*\*\* $p < .001$ , \*\* $p < .01$  (a = 4학년, b = 6학년, c = 중2학년)

같이 행동적 요인의 평균이 -.0139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정서 감정적 요인은 평균이 -.0007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1) 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성

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표 6〉에 의하면 6학년별로 각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M = .37, SD = 2.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2학년(M = .02, SD = 3.07), 초등학교 4학년(M = -.50, SD = 2.25)순으로 나타났다(F = 9.860,  $p < .001$ ).

도덕성 요소로 정서 감정적 요인은 초등학교 4학년(M = .16, SD = .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 = -.15, SD = 1.00). 또한 동기적 요인은 중학교 2학년(M = .23, SD = 1.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적 요인(M = .24, SD = .97)과 행동적 요인(M = .22, SD = .97)은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발달 정도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F = 9.860,  $p < .001$ ).

2) 아동의 성에 따른 도덕성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t = -3.288$ ,  $p < .01$ )을 보여준다. 동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나타냈다. 동기적 요인( $t = -2.838$ ,  $p < .01$ )과 인지적 요인( $t = 2.765$ ,  $p < .01$ ) 모두 여자

〈표 7〉 아동의 성에 따른 도덕성 차이

도덕성요인	M(SD)		
	남자 (N = 430)	여자 (N = 453)	t
정서감정적	-.06(.96)	.05(1.03)	-1.660
동기적	-.10(.98)	.09(1.01)	-2.838**
인지적	-.10(1.09)	.09(.90)	-2.765**
행동적	-.07(1.01)	.04(.99)	-1.592
전체	-.32(.27)	.27(2.64)	-3.288**

\*\* $p < .01$

의 도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 아동의 시험과 과제를 부정행위와 도덕성간의 관계

아동의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와 도덕적 특성 간의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8〉에 의하면 시험 부정행위와 도덕적 특성은 모든 영역에서 .110부터 -.218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기는 정서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행위 돕기는 정서감정적 요인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제물 부정행위 하기는 동기적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 정서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과제물 부정행위 돕기는 정서감정적 요인에서 부적 상관관계와 동기적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도덕성이 시험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아동의 도덕성이 시험 부정행위에 영

〈표 8〉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와 도덕성의 상관관계

(N = 883)

학업부정행위 영역		정서감정적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시험	부정행위 하기	-.164**	.053	-.089**	-.110**
	부정행위 돕기	-.087*	.028	-.060	-.064
과제물	부정행위 하기	-.218**	.079**	-.106**	-.125**
	부정행위 돕기	-.143**	.110**	-.064	-.058
전체		-.184**	.084*	-.096**	-.106**

\*\*p < .01, \*p < .05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t = 1.157, p = .248$ ). 그리고 아동의 도덕성이 과제물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며, 정서감정적 요인에 의한 도덕성에만 과제물에 대한 부정행위( $\beta = .170, t = 2.420, p < .05$ )가 나타나고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는 전체적으로 4점 척도의 문항에서 시험 평균이 1.26, 과제물 평균이 1.54점으로, 부정행위를 가꿈 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시험보다는 과제물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시험 영역에서는 다른 학생의 시험을 도울 때 보다는 자신이 직접 시험을 치를 때 더 많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제물 영역에서는 내가 과제물을 할 때 보다는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하는 것을 도와줄 때 부정행위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동들이 아직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내 과제물 보다는 다른 사람의 과제물 하는 것을 도와줄 때 즉 오픈되는 상황에서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학업 부정행위는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모든 영역 즉 학업부정행위 하기와 돕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에 있어서,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부정행위 하기 즉 남의 것 보고 쓰기, 신호로 답 받기, 답안지 받기, 쪽지보기, 책보기와 책상, 벽에 답 쓴 것 등을 이용해서 학업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물에 대한 학업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돕기 즉 베끼도록 허락하는 것, 숙제 빌려주기, 친구의 숙제 대신 해주기가 빈번히 나타나는 학업 부정행위였다.

이것은 나이든 학생들이 조금 더 학업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Hartshorne과 May(1928)의 연구나 다양한 연령 집단간에 학업 부정행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Black(1962)의 상반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도덕성에 대한 점수는 90점 만점에서 62.12 점을 나타내서, 중상정도의 점수로 평가된다. 특히 아동의 도덕성은 도덕성의 평가 4가지 요소중, 2점수에 의해 정서감정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중등생의 도덕성은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이익을 실제로 나의 것과 같게 생각하고, 타인의 욕구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도덕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교 2학년이며,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도덕성이 증가하기도 하고(김상윤, 1989; 박찬주, 1990; Lickona, 1976; Kohlberg, 1984), 감소하기도 하는(차우규, 1997)등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위 연구들과는 달리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에는 전체적으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도덕성을 보이고 있어서,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덕성의 동기적, 인지적 요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아동발달 특성상 여성이 남성보다 발달수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반영되었으리라 보는데, 정서의 개념을 강조하는 동기적 요인과 사실의 정보원천에 대한 앎과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 기술 습득의 내용을 강조하는 인지적 요인이 일반적인 정서감정 요인과 행동적 요인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셋째, 아동의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와 도덕성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동기적인 요인에서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아동의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가 나의 정서감정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감정을 인지하는 동기적 요인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험과 과제물에 대한 부정행위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의 도덕성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부정행위를 할수록 아동의 도덕성은 상실되어 간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부정행위 초기에 갈등하는 단계에서 도덕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도덕성이 전체적인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은 아동의 부정행위가 도덕성 관계와는 별도로 아동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 이외에는 특히 과제물의 경우에는 죄책감 없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아동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는데 다음은 아동들과 면접을 가졌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저는 옛날에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지 않아서 왕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시험 볼 때 보여 달라고 하면 그냥 보여줘요. 그렇지만 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며칠동안은 그 친구가 저한테 잘 해주거든요.”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사회시간에 선생님이 조별로 나눠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6명이 한 조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열심히 조별 숙제를 한 사람은 저와 친구 단 2명이었구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같이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그 친구들은 개인별로 하는 숙제는 열심히 하면서 조별로 하는 숙제는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 친구들중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막상 조별 숙제는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학업부정행위라고 하니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학업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B중학교 2학년 여학생)

이처럼, 아동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부정행위에 대한 용어의 개념부터 어려워했고,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콜버그 것이 아닌 윌슨의 도덕성을 택한 것은 도덕성의 요소들이 전체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윌슨은 주로 발달이론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도덕성을 정서감정의 능력, 동기, 인지와 행동 등의 4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이 도구를 남궁달화가 수년에 걸쳐 만든 설문지로 현 학교 현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학업부정행위와 연계한 것도 의미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라는 주제가 아동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이므로 도덕성의 4요소 표준화 점수가 낮아 각 요소의 두드러진 특징 양상을 알아내기에는 미흡하였다. 특히 도덕성

의 정서감정적 요인 문항에서 초등학생 아동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들이 있어 그 내용을 쉽게 수정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도덕성의 측정도구를 초·중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는 다른 도구를 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상 연구대상자를 서울지역으로 국한시켰으며, 계층별 제약을 미리 방지하고자 전문가의 조언으로 표집대상을 정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성 특수성에 입각한 편향한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기에, 추후 좀 더 다양한 지역 및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초등생들과의 면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과제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설문지 작성 시 부정행위의 횟수를 알아내는 것과, 부정행위라는 민감한 문제에 거부 반응이나 아동이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한 면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되며, 교실 내에서 설문지 작성이 여전히 제한점으로 작용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에서 행하는 시험과 과제물 부정행위는 모든 학생에게서 행하여지지 않고 일부 학생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위라고도 보여지므로, 부정행위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김상윤(1989).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 발달 경향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궁달화(2005). **도덕성 진단검사와 도덕교육**. 미간행
- 박찬주(1990). 한국인의 도덕 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적용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현저(1994). 시험부정행위와 성(性), 내·외적 성공기대, 반사회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연희(2003).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자기효능감이 학업부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1999). 성별·학년·학교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 차이 비교. **교육학연구**, 37, 105-125.
- 우남희, 한국선(2005). 한국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 10, 174-186.
- 정철(1996). 초등학교 학생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방법과



- 이유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우규(1997). 초·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의식 및 도덕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준상(1995). **학교 스트레스(시험제도의 개혁)**. 서울: 연세대  
 학교 출판부.
- Anderman, E. M.(1998). Motivation and cheat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1), 84-93.
- Antion, D. L., & Michael, W. B.(1983). Short-term  
 predictive validity of demographic, affective,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in relation to  
 two criterion measures of cheating behavio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3*,  
 467-482.
- Black, D. B.(1962). The falsification of reported  
 examination marks in a senior university  
 education course, *Journal of Educational Sociology*,  
 35, 346-354.
- Bunn, D. N., Caudill, S. B., & Gropper, D. M.(1992).  
 Crime in the classroom: An economic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 cheat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1*, 197-207.
- Bushway, A., & Nash, W. R.(1977). School cheating  
 behavior.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4),  
 623-632.
- Evans, E. D., & Craig, D.(1990). Adolescent cognition  
 for academic cheating as a function of grade  
 level and achievement statu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325-345.
- Evans, E. D., Craig, D., & Mietzel, G.(1993).  
 Adolescents' cognitions and attributions for  
 academic cheating: A cross-national stud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6), 585-602.
- Franklyn-stokes, A., & Newstead, S. E.(1995).  
 Undergraduate cheating: who does what and  
 wh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0*(2), 159-172.
- Gehring, D., Nuss, E. M., & Pavela, G.(1986). *Issues and  
 perspectives on academic integrity*. Columbus, OH.  
 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Personnel  
 Administrators.
- Gomez, D. S.(2001). Putting the shame back in student  
 cheating. *The Education digest, 67*(4), 15-21.
- Hartshorne, H., & May, M. A.(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N, Y.: Macmillan.
- Kibler, W. L.(1993a). Academic dishonesty: A student  
 development dilemma. *NASPA Journal, 30*, 4-12.
- Kibler, W. L.(1993b). A framework for addressing  
 academic dishonesty from a student  
 development perspective. *NASPA Journal, 31*(1),  
 21-44.
- Kibler, W. L., Nuss, E. M., Paterson, B. G., & Pavela,  
 G.(1988). *Academic integrity and student  
 development: Legion issues, policy perspectives*.  
 Asheville, N.C.: College Administration  
 Publications.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 Lickona, T.(1976).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Y.: Halt,  
 Reinhart and Winston.
- McLaughlin, R. D., & Ross, S. M.(1989). Student  
 cheating in high school: A case of moral  
 reasoning vs 'fuzzy' logic. *High School Journal*,  
 72(3), 419-424.
- Peters, R. S.(1971). *Ethics and education*. London; Allen  
 and Unwin.
- Schab, F.(1991). Schooling without learning: Thirty  
 years of cheating in high school. *Adolescence, 26*,  
 839-847.
- Singhal, A. C., & Johnson, P.(1983). How to halt  
 student dishonesty. *College Student Journal, 17*(1),  
 13-19.
- White, W. F., Zielonka, A. W., & Gaier, E. L.(1967).  
 Personality correlates of cheating among college  
 women under stress of independent  
 opportunistic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1*, 68-70.
- Wilson, J.(1973). *A preface to morality*. London:  
 Macmillan.

접 수 일 : 2010년 3월 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7일